

실패국가, 실패패권, 근대국가의 홀로코스트 삼중주

: 청일전쟁과 일본의 동학농민군 대량학살의 개념적 분석*

손기영 _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목 차

- I. 서론
- II. 개념과 연구 질문
- III. 실패국가 조선과 동학농민전쟁
- IV. 근대국가 일본과 홀로코스트
- V. 실패패권과 공위기
- VI.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청일전쟁 전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용과 이러한 격변기에 일본군에 의해 학살당한 조선 민중에 대한 국제정치학 및 역사학적 분석이다. 이 연구는 학제적 분석을 시도함에 있어 역사학이 강조하는 1차 사료에 대한 수집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개념화도 추구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국가 실패(state failure)라는 개념과 나치정권에 의한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분석법을 이용하는 등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전쟁에 대해 국제적, 국가적, 민중 운동적 층위에서 접근한다. 이를 통해 일본군에 의한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30~40만 명에 달하는 동학농민군과 양민의 학살이 어떤 국제적, 국내적 환경에서 가능했는지를 재조명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반도에서 실패국가(조선)와 실패패권

* 본 연구는 동북아역사재단의 후원(과제번호: NAHF-2018-기획연구5 “근대 동북아시아의 전쟁과 세력전이”)으로 수행되었음.

(청)이 통치 위기를 유발하면서 근대국가(일본)의 침략성과 잔혹성에 의해 청일 전쟁과 동학농민군의 홀로코스트가 발생했다고 본다.

주제어

청일전쟁, 동학, 대량학살, 홀로코스트, 실패국가

.....

I . 서론

청일전쟁을 분석할 때 청과 일본의 국가 간 대결과 세력 전이가 부각되면서 조선의 쇠락과 일본의 침략으로 촉발된 동학농민전쟁은 별도의 사건처럼 취급되는 경향이 강하다.¹⁾ 일본군이 조선에 도착해서 처음 실행한 것이 경복궁을 점거하고 고종을 볼모로 잡는 전투라는 것에 주목하면,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행위에 저항해 조선의 민중이 봉기한 것이라면 이 전쟁의 성격은 분명해진다. 일본은 조선을 세력권 안에 넣기 위해 출병했고 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청군과 동학농민군에 대해 두 개의 전쟁을 벌인 것이다. 경복궁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궁궐수비대 간의 3시간 정도의 짧은 전투가 있었지만 쉽게 진압되었고,²⁾ 조선의 수호를 위한 전쟁은 조선의 지배층이 아니라 핍박의 대상이었던 동학농민군에 의해 수행되었다. 동학은 부르주아 혁명은 아니더라도 평등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자생적 근대화의 산물이었다.³⁾ 그러나 근대국가로의 빠른

1) 平野龍二, 『日清・日露戦争における政策と戦略: 「海洋限定戦争」と陸海軍の協同』, 千倉書房, 2015; 原田敬一, 『日清・日露戦争』, 岩波新書, 2007.

2) 김경록, 『청일전쟁과 일제의 군사강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58쪽.

전환에 성공해 당시로는 첨단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화승총과 죽창으로 대항한 동학농민군의 전투는 하나의 대량학살(genocide) 또는 홀로코스트(Holocaust)로 귀결되었다.

이 연구는 청일전쟁 이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이러한 격변기에 일본군에 의해 학살당한 조선 민중에 대한 국제정치학 및 역사학적 분석이다. 이 연구는 학제적 분석을 시도함에 있어 역사학이 강조하는 1차 사료에 대한 수집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제정치학적 개념화도 추구할 것이다.⁴⁾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 국가 실패(state failure)라는 개념과 나치정권에 의한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분석법을 이용하는 등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전쟁에 대해 국제적, 국가적, 민중 운동적 층위에서 접근한다.⁵⁾

이러한 분석을 통해 패권의 공백기는 어떻게 발생했고, 국가이성(raison d'État)을 소유하고 있다는 근대국가는 어떤 이유로 대량살상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지역 패권의 부재 및 지배 권력의 무능으로 인해 '실패국가(failed state)'에 속했던 민중의 희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⁶⁾ 이 연구는 패권의 공백기를 공위기(空位期, Interregnum)로 명명하면서 일본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열강의 간섭으로 패권의 전환이 쉽지 않았던 이유와 이러한 공위기를 초래하는데 일조한 조선의 국정 위기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일본군에 의한 3만 명이 넘는 동학군의 학살이 어떤 국제적, 국내적 환경에서 가능했는지를 재조명 할 수 있다. 정리하면, 한반도에서 실패국가(조선)와 실패패권(청)이 통치 위기를 유발하

3) 강만길, 『고쳐 쓴 한국 근대사』, 창작과 비평, 2001, 218쪽.

4) Colin Elman, Miriam Fendius Elman, (eds.) *Bridges and Boundaries: Historians, Political Scientists, and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MIT Press, 2001).

5) Robert I. Rotberg, "Failed States, Collapsed States, Weak States: Causes and Indicators," in Robert I. Rotberg (ed), *State Failure and State Weakness in a Time of Terro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3); Lucy S. Dawidowicz, *The War Against the Jews: 1933-1945*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5).

6) Rotberg(2003).

면서 근대국가(일본)의 침략성과 잔혹성에 의해 청일전쟁과 동학농민군의 홀로코스트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전쟁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방대한 문헌자료를 소개하기 보다는 이 사건들을 개념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자료에 집중할 것이다. 특히, 19세기 열강의 국방예산과 식민지 인구 통계를 비교한 데이터셋(dataset)을 이용하고, 영국 국립공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의 외교문서를 참조한다. 이 외교문서에는 일본에 의한 '가택연금' 상태에서 동학농민군의 3차 봉기에 호의적으로 반응한 고종의 언사를 포함해 당시 영국외교관들이 수행한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전쟁에 대한 사태파악노력과 대응이 담겨있다. 영국공사관은 청일전쟁 당시 원세개(元世凱)를 포함한 청의 관료들이 한성에서 철수하면서, 청의 요청으로 이권의 관리와 영사 업무를 담당했다. 영국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예상되자 일본이 “속임수와 교활함(guile and shrewdness)”으로 청의 영토를 잠식하게 버려두는 것보다 현상유지 쪽이 영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⁷⁾ 또한 동학농민전쟁의 동향, 일본의 국권 및 이권 침탈, 개혁 실패에 따른 왕실과 민중의 반일감정에 대해서도 잘 묘사하고 있다.⁸⁾ 이 자료들은 패권질서의 전환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패권전환기의 민중 운동에 대한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21세기 패권전환기의 한반도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던지는데 이것은 결론부분에 약속하고자 한다.

7) Foreign Office, Mr. O'Conor to the Earl of Kimberley, "Further Correspondence relating to Corea and the War between China and Japan, January to March 1895," October 1895, p. 114.

8) Foreign Office, October 1895, pp. 102-105.

Ⅱ . 개념과 연구 질문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전쟁의 분석에 이용될 개념들과 연구 질문을 먼저 제시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19세기 말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선이라는 특수성이나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 동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었던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탈, 전쟁, 대량학살의 사례와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1894년 당시 세계 인구에서 식민지배하의 인구가 552,686,925명으로 가장 많았고(34.7퍼센트), 32.4퍼센트는 전제정치국가, 약 10퍼센트가 민주정치국가에서 살았다는 데이터가 있다.⁹⁾ 이 연구에서는 동학혁명 당시의 조선을 '실패국가'로 청이 한반도에 대해 행사한 패권을 '실패패권'으로 분류하면서 근대국가로 부상한 일본과 대비시켜 분석한다. 이 접근법을 통해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전쟁을 하나의 틀로 분석하면서 전쟁과 학살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1. 실패국가

미국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킨다는 목적하에 국가체제가 붕괴한 나라에 대해 국제사회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실패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했다.¹⁰⁾ 하지만 실패국가라는 명분하에 촉발된 국제사회의 개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 자체가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라고 주장하는 시각도 강하다.¹¹⁾ 분명한 것은 근

9) Andreas Wimmer and Brian Min, "From Empire to Nation-State: Explaining War in the Modern World, 1816-2001,"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6(2006), pp. 867-897.

10) Gerald Helman and Steven B. Ratner, "Saving Failed States," *Foreign Policy* 89 (1992-1993), pp. 3-20.

11) Henry J. Richardson, "Failed State, Self-Determination, and Preventive Diplomacy: Colonialist Nostalgia and Democratic Expectation," *Templ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10(1996), p. 1; Ruth Gordon, "Saving Failed States: Sometimes a Neocolonialist

대기 또는 냉전의 종식과 상관없이 국가의 내부분열은 외부세력의 개입 명분을 준다는 것이다.

20세기 말에 통용된 실패국가라는 개념을 19세기말 전근대국가인 조선에 대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당시 조선의 상황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잣대를 제공해 준다. 국가 실패(state failure) 현상을 연구하면서 로버트 로트버그(Robert Rotberg)는 안보와 안전과 같은 정치적 재화(political goods)의 제공 여부에 따라 강한 국가(strong state), 약한 국가(weak state), 실패국가(failed state), 붕괴국가(collapsed state)로 나누었다.¹²⁾ 이 분류에 따르면 식량위기를 겪은 1990년대의 북한 또는 폴 포트(Pol Pot) 통치하의 캄보디아가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같은 정치적 재화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약한 국가로 분류되고 탈레반이 통치한 아프가니스탄은 실패국가로 분류된다. 실패국가는 국가내의 경쟁 집단에 의해 내란에 휩싸여있거나, 정부군과 반군이 전쟁 중이며, 국경은 통제되지 않고, 부패와 범죄가 만연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혼란의 극단에 있는 국가가 붕괴국가이며 1980년대의 소말리아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실패 국가라도 정부의 국정운영 효율성이 사라진 것이지 정부의 존재와 권리능력이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국가의 존재는 기존의 정부에 의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¹³⁾ 실패국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종합하면, 1) 폭력의 독점적 행사를 통한 안보와 안전의 제공여부, 2) 법치의 여부, 3) 시민의 생활 기반 및 복지의 제공 여부가 중요하다.

Notion,”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12-6(1997), pp. 903-973.

12) Rotberg(2003), p. 2.

13) 김선표, 「실패국가에 대한 국제사회 개입 문제: 북한 관련 합의와 대응방안에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24집 1호, 2017, 8쪽.

2. 근대국가와 홀로코스트

근대적 세계질서는 국민국가(nation state)들로 구성된 체제이므로 국가의 약화 혹은 붕괴는 이 체제의 기초를 흔드는 위협이다.¹⁴⁾ 유럽의 국가형성은 통치 집단이 군대를 양성해 외부의 적을 막고, 경찰과 관료를 통해 내부의 치안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조세의 의무를 지우는 과정이다.¹⁵⁾ 찰스 톨리(Charles Tilly)는 근대국가가 권력의 중앙 집중과 폭력의 독점을 추구하는 과정을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들었다”라고 묘사한다.¹⁶⁾

근대국가의 형성과 제국주의 국가의 탄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에서 제국(帝國)이라는 용어는 『일본서기』에 처음 나타나지만 근대에 와서는 1789년 난학자인 구쓰기 마사쓰나(朽木昌綱)가 ‘카이저의 나라’를 뜻하는 네덜란드어 keizerrijk를 번역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¹⁷⁾ 일본 제국의 형성에 사상적 토대를 제시했다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를 필두로 일본이 추구한 제국은 중국 중심의 질서를 허물고 일본을 지도국으로 새로운 수직적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1868)과 청일전쟁 발발 사이의 30년 가까운 시기에 국가의 폭력행사를 정당화하는 담론이 형성되면서 군사적 부상에 앞서 이미 ‘전쟁기계’로서의 근대국가화가 일본인의 의식세계에서 진행되었다. 에도시대에는 권력이 천황, 막부의 쇼군, 번의 영주들에게 분산되

14) Rotberg(2003), p. 1.

15) Charles Tilly,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p. 42.

16) Charles Tilly,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s Organized Crime,” in Peter Evans, et al.,(ed) *Bringing the State Back*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 181.

17) 吉村忠典, 「帝國という概念について」, 『史學雜誌』 108編 3号, 1999, 40쪽; 이삼성, 「제국 개념과 19세기 근대 일본」, 『국제정치논총』, 51권 1호, 2011, 66쪽.

었는데, 대정봉환(1867)과 메이지유신을 통해 권력의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막스 베버(Max Weber)에 따르면 “국가는 일정한 영토 내에서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인간 공동체”이므로 폭력은 국가권력의 일반적인 수단이다.¹⁸⁾ 베버의 사상과 함께 국익을 위해 권모술수의 행사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일본에 소개되었다. 후쿠자와는 『통속국권론』에서 마키아벨리와 비슷한 입장에서 국가 차원의 이익 추구를 도덕 추구와 분리시키는 접근법을 취했고, 이것을 ‘탈아론(脫亞論)’과 연결시켜 청과 조선의 체제 전복을 회구했다.¹⁹⁾

전쟁을 통해 성장한 근대국가는 어떤 이유에서 홀로코스트라고 볼 수 있는 대량학살을 저지르게 되는 것일까? 이 연구에서는 일본군에 의한 동학농민군 대량학살의 배경과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홀로코스트 분석에 사용된 접근법을 이용한다. 홀로코스트(Holocaust)란 용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데 신에게 동물을(holos) 태워서(kaustos)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홀로코스트는 문명이나 근대국가의 일시적 일탈행위가 아니라 합리성을 중시하며 비합리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근대국가의 태생적 문제이다.²⁰⁾ 홀로코스트는 대량학살을 의미하지만 1960년대 이후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학살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통용되어 왔다. 많은 유대인들은 나치에 의한 대량학살을 지칭하는 히브리어인 ‘쇼아(Shoah)’를 선호하지만, 홀로코스트가 대량학살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통용되므로 유대인 학자들도 홀로코스트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해 왔다. 홀로코스트 연구의 권위자 중 하나인 루시 다비도비츠(Lucy Dawidowicz)는 독일에 의한 600만의 유대인 학살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 3가지 질문

18) Max Weber, *Weber: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 310.

19) 福澤諭吉, 『通俗國權論』, 慶應義塾出版社, 1878; 安川壽之輔, 『福澤諭吉のアジア認識』, 高文研, 2000.

20)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역,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새물결, 2013.

을 던진다.²¹⁾

1. 어떻게 근대국가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전 민족을 조직적으로 살해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2. 어떻게 전 민족이 말살되는 상황을 스스로 용인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3. 어떻게 전 세계는 이 말살행위를 중지시키지 않고 방관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이 세 개의 질문은 국제사회라는 국제적 행위자, 독일이라는 국가적 행위자,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비국가행위자를 포함한 세 개의 층위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는 다비도비츠와 비슷한 맥락에서 먼저 동학농민군은 왜 무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일본의 정규군에 저항하면서 비극적 최후를 맞았는지를 주목한다. 둘째,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했다는 일본은 왜 정규군이 아닌 농민군을 대량 학살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분석한다. 셋째,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패권공백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 도래해서 국제사회의 방관 속에 대량학살이 자행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물론 600만 명의 학살과 최소 몇 만 명의 학살은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유대인과 동학농민군이 각각 종교적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고, 근대국가가 자행한 범죄이며, 전 세계가 이러한 학살에 대해 방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동학농민군과 양민에 대한 대량학살이 제물을 불로 태우는 의미를 가진 홀로코스트에 해당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청일전쟁 참전 일본군 병사들의 일지를 조사해 보면 동학농민군의 학살과 관련 참혹함이 드러나는데 전투에서 우월한 무력을 통해 섬멸시키는 것을 넘어서 포

21) Dawidowicz(1975), p. xxxv.

획된 농민군 포로를 고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살상했으며, 시체는 소각했고, 심지어 마을 전체를 불태워 버리는 극단적 방법도 동원했다. 마을 전체가 동학농민군에 가담한 옥천의 경우에는 “60리에 걸쳐 민가에는 사람이 없었고, 수백 호가 불에 타 없어졌으며, 또한 많은 사체가 노상에 버려져 개와 새들의 먹이가 되고 있다”고 토쿠시마현(德島縣) 출신 일본 병사가 진중일지에서 밝혔다.²²⁾

3. 실패패권과 공위기(空位期)

국가 유형의 분류와 유사한 방법으로 패권의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강한 패권, 약한 패권, 실패패권, 붕괴패권이 그것이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세계화에 고무되어 “역사의 종언”을 논의한 시점에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강한 패권을 행사했다고 하면,²³⁾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미국은 말과 행동은 거칠지만 정치적 재화를 제공하는데 인색한 약한 패권을 행사한다. 이런 맥락에서 청이 임오군란 이후 행사한 패권은 붕괴를 앞둔 실패패권에 가깝다. 앞서 언급한 실패국가처럼 실패패권인 경우에 패권의 효율성은 사라졌어도 명목상의 패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조약이 필요한데 청일전쟁 후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이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패권이 붕괴되면서 패자(覇者)가 분명하지 않는 기간을 공위기(空位期, 라틴어: Interregnum)라고 명명한다. 공위기란 어떤 국가의 정부공백기, 특히 군주제 국가의 일시적 군주 부재기를 말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지역 패권국의 부재기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한다. 흔히 사용되는 세력전이(power transition)라는 개념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22) 나카츠카 아키라, 이노우에 가쓰오, 박맹수,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모시는 사람들, 2014, 124쪽.

23)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1992).

세력이 넘어가는 상황을 상정하지만, 현실에서 세력전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로 의존적이지도 않다. 보통, 기존의 패권국이 권능을 상실하면서 패권의 행방은 불확실한 상태가 된다.

요약하면 임오군란이 발생하면서 청이 조선의 자주권을 위협하기 시작한 1882년부터 조선은 독립국이라고 할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진다. 개화를 위한 조선 자체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1910년까지 대한제국이라는 국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청, 일본, 러시아, 영국 등 열강들 간의 힘의 균형과 견제 때문이었지 왕조나 정부의 역량 때문은 아니었다. 한반도에 대한 패권은 청일전쟁으로 청에서 일본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패권의 공위기가 온 것이고, 이 공위기는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종식된다.

Ⅲ. 실패국가 조선과 동학농민전쟁

1. 실패국가 조선

1894년에 조선에서 발생한 전쟁을 왜 청일전쟁이라고 부를까?²⁴⁾ 이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생했고 전쟁에 동원된 인원이나 사상자도 조선인이 가장 많은데 왜 조선전쟁으로 불리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 전쟁의 주체는 청과 일본이고 조선은 전쟁의 주체가 아니라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조선의 주권자로서 왕이 존재했지만 왕의 위상과 역할이 미약했고, 외침에 맞서 봉기한 민중은 전쟁의 주체로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쟁과 홀로코스트가 조선에서 가능했던 이유는 조선이 통치불능 상태인 실패국가가 되면서 외세의 간섭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원

24) 하라 아키라, 김연옥 역, 『청일·러일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살림, 2015.

래 이런 나라는 아니었다. 병자호란(1636~1637)에서 청을 상대해 2개월 정도였지만 전쟁을 벌였고 항복하면서 조공국이 되었다. 그 후 200년 간 국가로서의 통치 능력이 퇴보했고 19세기 말에는 이미 통치의 효율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특히 1855년 이후 청일전쟁까지의 40년간의 경제위기에는 쌀 생산과 공급의 감소, 무역과 시장의 쇠퇴, 환곡과 같은 국가적 재분배 경제체제의 와해 등으로 민란이 빈발하고 왕조의 정치통합기능이 훼손됐다.²⁵⁾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이용해 청이 조선의 국정운영에 대한 간섭을 확대하고 일본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조선의 내부는 분열되어 혼란이 가중되었다. 앞에서 요약한 실패국가의 판단기준인, 1) 폭력의 독점 행사를 통한 안보와 안전의 제공여부, 2) 법치의 여부, 3) 시민의 생활 기반 및 복지의 제공 여부를 19세기 말 조선에 대입해서 논의한다.

첫째, 조선 정부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과정에서 외국군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 독립국가로서 폭력의 독점적 행사에 실패했다. 이것은 외국의 군사, 외교적 간섭의 확대와 민란과 같은 내란으로 이어졌다. 1905년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보호국이 되기에 앞서 조선은 이미 1884년 갑신정변 이후부터 청일전쟁의 발발 시점인 1894년까지 청의 사실상의 보호국으로 전락했다.²⁶⁾ 고종은 1882년에 임오군란으로 실각하고 대원군이 집권했으나 청의 군사적 개입으로 고종이 복위된 것이다. 청은 조선을 조공국이 아니라 서양 국제법에 따른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군란이 청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었다. 청은 군란의 진압을 위해 6,000명의 군사를 출병시킨 후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1884년 봄까지 오장경(吳長慶)과 원세개가 지휘하는 군사 3,000명을 남겨두었고 갑신정변이 일어난 시점에도 1,500명이 조선에 있었다.²⁷⁾ 갑신정변의 주모자들이 일본군에게 지

25) 이영훈, 「19세기 조선왕조(朝鮮王朝) 경제체제(經濟體制)의 위기(危機)」, 『조선시대사학보』, 43집, 2007, 267~296쪽.

26) 구선희, 『한국군대 대청정책사 연구』, 혜안, 1999, 20쪽.

27) 구선희(1999), 82쪽.

나치게 의지하면서 200명 정도의 군인과 행동대원을 동원해 정권을 장악하자 청의 주둔군은 이들을 쉽게 진압했다.²⁸⁾ 조선의 왕권은 이미 1882년부터 실추되어 북양대신 이홍장의 후광을 입고 조선을 장악한 원세개가 사실상 ‘총독’의 역할을 했다. 원세개가 일시 귀국 후 1885년 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이라는 직함으로 재차 파견되면서 국가를 대표하지 않는 북양대신의 파견원 신분이었지만 향후 8년간 조선의 내정과 외교 정책에 간섭했다.²⁹⁾ 청일전쟁 당시 경복궁이 일본군에게 점거당한 상황에서 “초조한(nervous)” 고종은 영국, 미국, 러시아 공관에 배치된 각국의 해병대와 수비대가 한양에서 철수하지 않도록 영국 총영사에게 “간청(begging)”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면,³⁰⁾ 조선의 군대는 왕과 민중에게 안보와 안전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둘째, 19세기에 들어 조선의 법치는 상당히 무너진 상태였다. 삼정의 문란으로 지배층은 조세와 공역의 부과를 통해 폭력적 수탈을 감행했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면서 유민이 증가했으며, 심지어 중국의 마적단(馬賊團)과 같은 떼강도인 ‘명화적’이 등장했다.³¹⁾ 통치와 치안의 부재 상황이 동시에 벌어진 것이다. 어린 왕이 즉위하거나 왕위 계승의 문제가 걸린 가운데 세도 정치가 극성을 부리고, 정통성 확보를 위한 왕실 행사가 증가하면서 조세의 의무가 강화되자 임술민란(1862)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³²⁾ 특히 정조 사후 63년간의 세도정치기(1800~1863)에는 경주김씨, 안동김씨, 풍양조씨 등의 가문이 국정을 전횡하면서 법질

28) 박은숙, 「갑신정변 주도세력의 참여층 포섭과 무력동원」, 『한국근현대사연구』, 27집, 2003, 37쪽.

29) 구선희, 「갑신정변직후 反淸政實策과 청의 袁世凱 파견」, 『사학연구』, 51권, 1996, 33쪽.

30) Foreign Office, October 1895, p. 20.

31) 배항섭, 「기획 부호와 도적의 사회사 조선후기 삼정문란과 명화적」, 『역사비평』, 17호, 1991, 338~344쪽.

32) 임혜련, 「철종대 정국과 권력 집중 양상」, 『한국사학보』, 49권, 2012, 121~158쪽.

서 자체가 붕괴되었다.³³⁾ 청일전쟁 중 조선의 정권을 장악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일본공사는 조선의 외무대신은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월터 힐리어(Walter Hillier) 영국총영사에게 전하면서, 전쟁 중 구금된 중국인들이 가장 거부하는 것이 ‘속국(vassal state)’이었던 조선의 법정에서 재판권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³⁴⁾ 고종의 직무는 이노우에의 전임인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공사에 의해 박탈된 후, 일본이 실질적인 통치를 담당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³⁵⁾

셋째, 조선은 민중들에게 적절한 생활 기반 및 복지 제공에 있어서 실패했다. 일본군이 청일전쟁을 위해 원산항에 상륙했을 때 처음 목격하는 것은 인분과 쓰레기로 뒤덮인 전근대 국가였다. 근대화를 통해 문명국이라고 자부해 온 일본의 군인들에게 불결한 도시 환경은 경악할 수준이었고, 전투보다는 이질과 콜레라 등 소화기 계통의 병과 싸워야했다.³⁶⁾ 이러한 조선에 대해 외세의 개입 없이는 자체적 근대화가 불가능했다는 식 민서관에 대한 비판이 ‘내재적 발전론’과 ‘자본주의 맹아론’을 등장하게 만들었지만, 이것 또한 조선의 변화역량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³⁷⁾ 분명히 조선은 변하고 있었지만 민중은 주권자가 아닌 통치 대상이었고 국가차원에서 제공되는 생활 기반과 복지는 미약했다. 1890년대 들어 확대된 미곡의 대(對)일본 수출의 혜택은 농민이 아닌 외국상인과 봉건지배계급에게 돌아갔고 민중의 생활은 피폐해졌다.³⁸⁾

33) 박현모, 「세도정치기(1800-63)의 정국운영과 언론 연구」, 『한국동양정치사상사 연구』 6권 1호, 2007, 163-187쪽.

34) Foreign Office, October 1895, p. 37.

35) Foreign Office, October 1895, p. 39.

36) 原田敬一(2007), 72-73쪽.

37) 이영훈, 「조선후기 이래 소농사회의 전개와 의의」, 『역사와 현실』 45집, 2002, 3-38쪽; 권내현, 「내재적 발전론과 조선 후기사 인식」, 『역사비평』 111호, 2015, 417-442쪽.

38) 하원호, 「곡물의 대일수출과 농민층의 저항」, 한국역사연구회(편),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역사비평사, 1991, 243-303쪽.

외세의 침범과 국내정치적 분열 상황에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와 사회 혼란의 희생자로 전락한 민중이 기존 체제에 저항하면서 동학농민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상황을 지켜 본 힐리어 총영사는 “내 생각에는 이 나라를 경험한 어떤 사람도 개혁과 관련된 계획을 조선인에게 맡기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것을 공감한다. 부패는 도를 넘어서 모든 공공기관이 일본이나 다른 외국의 감시 하에 있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다”라고 주조선공사를 겸직하고 있는 북경주재 영국공사 니콜라스 오코너(Sir Nicholas Roderick O'Conor)에게 보고했다.³⁹⁾

2. 동학농민전쟁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이 도화선이 되어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3월의 1차 봉기를 통해 관군을 물리치고 전주성에 입성했으나 청과 일본에게 군사 개입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전주화약을 맺고 자진해산했다. 1차 봉기 이후 정권의 위기를 느낀 조선 정부가 청에 지원을 요청하자, 청과 일본군이 거의 동시에 조선에 도착했고, 일본군이 조선 왕궁을 점거하자 외세배격을 기치로 2차 봉기가 시작된다. 이후 삼례봉기라는 제3차 봉기가 일어났지만 일본군에 의해 진압된다.

동학농민전쟁을 영국외교관들은 어떻게 분석했을까? “조선의 십자군 전쟁”이라고 불린 삼례봉기 시점에 힐리어 총영사가 오코너 공사에게 보낸 1894년 10월 17일 보고서에는 고종이 동학농민군을 보는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⁴⁰⁾ 고종이 전날 충청 감사로부터 20만 명의 동학군이 무장 상태에서 한양으로 진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힐리어에게 주의할 것을 경고했는데, “일본군을 몰아내고 불모로 잡힌 왕실을 구하기

39) Foreign Office, October 1895, p. 40.

40) Foreign Office, October 1895, p. 13.

위해” 동학군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친일내각이 일본군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상황에서 고종은 입장의 변화를 보이면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몰아내고 왕실의 권위를 회복시킬 것을 희망했다는 것이다. 고종은 자신을 사실상 폐위시키고 궁중이라는 “감옥”에 가두어버린 일본보다는 동학농민군의 활약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었으니 조선이 얼마나 통치불능의 상태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⁴¹⁾

동학농민전쟁은 반봉건적, 반외세적 농민항쟁으로 최초의 본격적 의병 운동이었지만 외세에 대항하고 정권을 쟁취할 만한 실력 면에서는 부족함이 많았다. 첫째, 농민군은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일본군과 맞설만한 무기를 보유하거나 훈련이 된 상태가 아니었다. 일본군은 영국군이 주요 사용했던 스나이더(Snider) 소총을 보유했지만, 동학농민군은 근대적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승총과 죽창으로 대항했다.⁴²⁾ 둘째, 외국군대와 관군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향촌사회의 지주·부호·양반들이 조직한 민보군(民堡軍)의 가담도 하나의 실패원인이었다. 동학세력이 설치한 집강소에 대해 양반세력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했다. 집강소의 행동 강령 속에 “빈부의 차이를 없애고 상전과 노비의 구별을 없앤다,” “양반과 유림의 방자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양반과 유교의 적”으로 규정된 것이다.⁴³⁾ 일본군에 의한 대량살상뿐만 아니라 민보군에 의한 살육이 있었다는 것은 동학농민군이 처한 사면초가와 같은 현실을 잘 반영하지만, 일본군, 관군, 민보군이 모두 참전해야 할 만큼 동학군의 위세가 대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셋째, 동학군 내의 분열이다. 과격파는 조선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 수립을 시도했지만, 전봉준 등의 온건파들은 흥선대원군과 협력하는

41) Foreign Office, October 1895, p. 105.

42) 나가즈카 아키라, 이노우에 가쓰오, 박맹수(2014), 59쪽.

43) 정승교, “동학농민운동 [東學農民運動: 반침략 반봉건의 최대 민중항쟁,” 「한국사 콘텐츠」,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E0097> (검색일: 2018.9. 30).

등 동학군 내부에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없었다.

조선에서 민란이 일어나면 주모자를 처벌하는데 그쳤지만,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을 학살한 후 그들의 근거지인 부락자체를 파괴하면서 조선인 들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참상이 벌어졌다. 이것은 유태인 지도자들이 나 치정권의 집권 초기에 역사의 진보와 정의를 믿으면서 독일의 유태인 정책과 차후에 일어날 학살에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참상의 규모를 키운 것과 비유된다.⁴⁴⁾ 유태인을 말살시켜야 할 기생충정도로 생각했던 히틀러 처럼, 당시의 일본에게 조선은 야만국이었고, 동학농민군은 ‘문명의 적’으로 규정되었다.⁴⁵⁾

IV. 근대국가 일본과 홀로코스트

1. 청일전쟁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일차적 목표는 1860년대 이후 서양열강과 청의 세력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는 조선의 불안정한 정세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조선을 ‘중립화’하는 것이었다.⁴⁶⁾ 1890년 야마카타 아리토모 수상이 ‘주권선’과 ‘이익선’이라는 개념을 제국의회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도입함으로써 주권이 미치는 일본이라는 공간을 넘어 조선과 대만이 일본의 이익선에 포함되게 된다.⁴⁷⁾ 하지만 청일전쟁을 통해 이 목표는 완전히 성취되지 못했는데,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통해 조선에 대

44) Dawidowicz(1975), p. 412.

45) 홍동현, 「1894년 일본 언론의 동학농민전쟁 인식」, 『역사문제연구』, 24권, 2010, 262쪽.

46) 平野龍二(2015), 3쪽.

47) 原田敬一(2007), 52쪽.

한 청의 지배가 강화되었다면 청일전쟁의 승리는 삼국간섭을 주도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주도한 조선의 내정개혁 실패도 한 몫을 했다. 청일전쟁 중에 수행된 이노우에 공사에 의한 개혁시도에 대해 힐리어 총영사는 조선의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일본인의 이권만 보장해서, 일본에게 우호적이었던 영국, 독일, 미국의 외교관들도 반감을 가지면서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거나 청의 종주권을 일본의 이기적인 직접 통치로 교체”하고자 한다는 의심을 갖게 했다고 보고했다.⁴⁸⁾

청일전쟁은 세 개의 전쟁이었다. 첫째는 1894년 7월 23일 경복궁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조일전쟁이고, 둘째는 7월 25일부터 다음해 4월 17일까지의 청일전쟁, 그리고 5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대만 정복 전쟁이다.⁴⁹⁾ 일본은 조선을 세력권 아래 넣는 것을 포함해 동남아시아와 남양군도의 정복전쟁을 위해 대만을 교두보로 확보하고자 했다.⁵⁰⁾

1894년 6월 1일 조선 정부가 청에 파병을 요청하자 청은 6일부터 25일까지 약 2,800명의 병력을 아산만에 상륙시켰고,⁵¹⁾ 텐진조약(1885)에 따라 일본에게도 파병 사실을 알렸다. 갑신정변 이후 청의 전권대신 이홍장과 일본의 전권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조선에서의 세력 균형을 위해 텐진조약을 맺어 양국군의 철수를 합의했으나, 출병할 경우 상호 통지한다는 조항은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6월 12일 인천항에 일본군 선발대가 상륙했고 추가파병이 곧 이루어졌다.⁵²⁾ 청은 일본과의 전쟁을 회피하고자 했으나, 일본이 이미 6월 5일 역사상 최초로 전시대본영을 설치하고 전시체제로 공식 전환했다는 것은 근대국가 일본의 전쟁의

48) Foreign Office, October 1895, p. 103.

49) 原田敬一(2007); 하라 (2015), 69쪽.

50) 原田敬一(2007).

51) 김경록(2018), 40쪽.

52) 原田敬一(2007), 60쪽.

지를 보여주는 일이다.⁵³⁾ 일본은 철병을 거부하면서 추가 병력을 파견했고, 7월 23일 경북궁 수비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고종을 볼모로 잡고 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친일 내각을 구성한다. 7월 25일 대원군은 청나라와의 종속관계를 파기하면서 아산에 있는 청의 군대를 몰아내라고 일본에 요청한다.⁵⁴⁾ 일본과 조선이 ‘공수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조일맹약을 26일 체결함으로써 일본은 조선과 청에 대해 합동군사작전을 개시하게 된다.⁵⁵⁾ 힐리어 총영사는 조선이 청과 전쟁상태라는 것은 조선 정부에 의해 인정된 적이 없고, 조선 정부는 청에 대한 적대행위가 그들의 의지에 반해 강요된 것임을 표명했다고 기록했다.⁵⁶⁾ 이어서 본격적인 해전과 육상전이 벌어졌고, 풍도 해전, 성환과 평양 전투, 황해 해전 그리고 압록강 전투에서 연승을 한 일본군은 여세를 몰아 11월 21일 청의 여순항을 점령하고 3만 명의 청국인을 학살했다.

일본의 근대국가로의 성장과 군사력의 확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황해 해전을 좀 더 살펴보자. 1894년 9월 17일에 압록강 근처에서 발발한 황해해전에서 청과 일본은 각각 12척의 전함을 동원했다. 일본의 함선에 비해 배수량이 2배에 이르는 7,000톤급 철갑함을 청이 2척 보유했으나 결과는 청의 대패였다. 청나라는 <표 1>의 북양함대 중 순양함 5척(양위, 초용, 경원, 치원, 광갑)이 격침되고, 정원과 진원이 대파되었으나, 일본은 3척(마쓰시마, 히에이, 아카기)이 대파되는 피해에 그쳤다.⁵⁷⁾ 이 표에서 주목할 것은 일본이 청과 텐진조약을 체결한 후 미래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전함을 발주한 반면 청의 함선은 이미 낡은 것이었다. 이 해상전투에서 보이지 않는 조선의 수군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53) 原田敬一(2007), 59쪽.

54) 하라(2015), 69쪽.

55) 김경록(2018), 99쪽.

56) Foreign Office, October 1895, p. 109.

57) 原田敬一(2007).

판옥선(板屋船)이 주력군함이었던 조선의 수군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무용함이 증명되었고, 1895년 통제영(統制營)과 각도의 수군이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⁵⁸⁾ 해군이 없는 조선에게 바다는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다.

〈표 1〉. 황해해전 참전 청일 양국의 해군

일본

	배수량(톤)	준공년	조선소
히에이(比叻)	2,200	1878	영국
후소(扶桑)	3,717	1878	영국
나나와(浪速)	3,650	1886	영국
다카치호(高千穂)	3,650	1886	영국
사이쿄마루(西京丸)	2,913	1888	영국
아카기(赤城)	614	1890	고베(神戸)
미쓰쿠시마(巖島)	4,278	1891	프랑스
치요다(千代田)	2,439	1891	프랑스
마쓰시마(松島)	4,278	1892	프랑스
요시노(吉野)	4,160	1893	영국
하시다테(橋立)	4,278	1894	요코스카(横須賀)
아키쓰시마(秋津洲)	3,172	1894	요코스카(横須賀)

청국

	배수량(톤)	준공년	조선소
양위(揚威)	1,350	1881	영국
초용(超勇)	1,350	1881	영국
정원(定遠)	7,314	1884	독일
진원(鎮遠)	7,310	1884	독일
제원(濟遠)	2,300	1885	독일
정원(靖遠)	2,300	1887	영국
치원(致遠)	2,300	1887	영국
내원(來遠)	2,900	1887	독일
경원(經遠)	2,900	1887	독일
광갑(廣甲)	1,296	1889	복주(福州)
평원(平遠)	2,100	1890	복주(福州)
광병(廣丙)	1,000	1892	복주(福州)

*참조: 原田敬一(2007), 82쪽 (준공년에서 일부 오기 수정).

58) 김재근, 『朝鮮王朝의 水軍』, 『군사』, 1권, 1980, 106쪽.

2. 동학농민군의 홀로코스트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면서 발생한 희생자 수는 연구자에 따라 3만에서 30~40만에 이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추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⁵⁹⁾ 5개월간의 동학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이 치른 전투는 46차례, 농민군 참가 인원은 연 134,750명으로 추산된다.⁶⁰⁾ 일본은 왜 동학군을 홀로코스트 방식으로 몰살했을까? 이것은 일본이 조선의 독점적 지배라는 목표를 위해 청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조선 내부의 저항세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후비 제19대대에게 내려진 훈령은 일본군 3개 중대가 세 방향으로 남하해서 전라도 쪽으로 동학농민군을 몰아붙인 후 “동학당을 격파하고 그 화근을 소멸시켜서 다시 발흥하거나 후환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⁶¹⁾ 그런데, 동학농민군의 진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러시아의 개입을 막는 것이었다. 일본의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 외상은 이노우에 공사에게 전보를 보내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동학군이 조선의 북부로 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⁶²⁾

이 학살에 대한 생생한 기록은 이노우에 가쓰오(井上勝生) 홋카이도 대학 명예교수가 한 향토사학자의 소개로 도쿠시마현 출신 병사의 후손으로부터 입수한 진중일지를 바탕으로 한 책 『동학농민전쟁과 일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⁶³⁾

59) 나카츠카, 이노우에, 박맹수 (2014); 조정달, 박맹수 역, 『이단의 민중반란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그리고 조선 민중의 내셔널리즘』, 역사비평사, 2008; 오지영, 동학사 초고본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서운연구소, 1996.

60) 原田敬一(2007), 72쪽.

61) 나카츠카, 이노우에, 박맹수(2014), 91쪽.

62) 原田敬一(2007), 71쪽.

63) 나카츠카, 이노우에, 박맹수(2014), 119쪽.

“당지(나주)에 도착하니 (나주성의) 남문으로부터 4정(약 400미터-역자)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산이 있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의 시체가 쌓여 산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민병(반농민군-역자) 혹은 우리 부대에게 포획되어 고문한 뒤에 중죄인으로 죽인 숫자가 매일 12명 이상, 103명을 넘어섰다. 그리하여 그곳에 버려진 농민군이 680명에 달했으며, 근방은 악취가 진동했고, 땅 위에는 죽은 사람 기름이 얼어 붙어 있어 마치 흰 눈이 쌓여 있는 것과 같았다…”

이것은 1895년 1월 일본군이 전남 나주, 해남, 장흥 일대의 동학농민군을 학살했던 당시 후비(後備) 제19대대 제1중대 제2소대 2분대에 배속돼 있던 병사가 남긴 진중일지의 일부다. 일본군은 동학군을 잡아서 일렬로 세워 놓고 총검으로 일제히 찔러 죽이는 등 관군과 조선인들이 경악할 수준의 잔혹성을 드러냈다. 일본정부는 고교 일본사 교과서 집필자였던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교수가 1965년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교과서 재판’에서 이에나가 교수가 기술한 “청일전쟁 때의 조선인민의 반일저항”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을 정도로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다.⁶⁴⁾

청일전쟁 중의 난징대학살에 대해서는 알면서 일본군 약 2만 명, 청군 약 3만 명, 동학군 포함 조선인 3만 명 이상이 사망한 청일전쟁에서 조선인에 대해 대량학살이 벌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당시 학살을 주도한 인물들이 이토 총리, 무쓰 외상, 이노우에 공사 등으로 밝혀지면서 학살책임자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필요한 상황이다.⁶⁵⁾

64) 나카츠카, 이노우에, 박맹수(2014).

65) 나카츠카, 이노우에, 박맹수(2014), 83쪽.

3. 근대국가의 대량학살

근대국가들의 폭력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량학살은 많은 식민지에서 자행되었다. 나치 독일이 주변국과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임과 동시에 유대인을 격리, 수송하고 대량 학살한 것을 또 하나의 전쟁으로 보는 시각이 있듯이,⁶⁶⁾ 일본군도 청군과 전쟁을 하는 동시에 동학농민군에 대한 전쟁을 벌였다.⁶⁷⁾ 히틀러는 러시아계 유대인을 수용시설로 보내기 위해 소련의 최전선으로 보내지는 군수품 수송열차의 배차시간을 연기하거나, 폴란드를 포함해 동유럽 점령지역의 수십만의 숙련된 유대인을 이송하기 위해 전쟁물자의 생산 차질을 감수할 정도였다.⁶⁸⁾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대규모 학살이 일본만의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근대국가의 대량학살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자행되었다. 동학농민전쟁의 시점에서 홀로코스트라고 불릴 수 있는 대량학살을 자행한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

일본이 동학농민군을 몰살하고 청을 물리친 후 동북아에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을 때, 미국은 미서전쟁(1898)에서 승리하면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획득했다. 그러나 제1공화국을 선포한 필리핀 민족주의세력이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항쟁하면서 필리핀-미국 전쟁(1899~1902)이 벌어졌다. 미국은 이것을 전쟁이 아니라 하나의 “반란(insurrection)”이라고 규정하며 무력으로 진압했다. 미국정부는 이 전쟁의 결과 4,200명의 미국군과 2만 명의 필리핀군이 사망하고, 폭력, 기근, 질병에 의한 필리핀 민간인 사망자가 20만 명에 달했다고 인정했다.⁶⁹⁾ 하지

66) Dawidowicz(1975).

67) 나카츠카, 이노우에, 박맹수(2014), 25쪽; 하라(2015), 79쪽.

68) Dawidowicz(1975), p. 187.

69)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Historian, “The Philippine-American War, 1899-

만 이것은 최소치일 가능성이 높고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미군은 필리핀인들의 게릴라 항쟁에 학살은 물론이고 마을과 농지를 불태우는 등 인종 청소에 가까운 보복을 자행했다. 특히, 30만 명이 전투, 기근,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바탕가스(Batangas)와 또 다른 피해지역인 발란지가(Balangiga)가 학살의 주 무대로 주목을 받고 있다.⁷⁰⁾ 300년 동안의 스페인 식민 기간보다 미국의 점령기간에 더 많은 학살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다.⁷¹⁾ 이 전쟁의 결과로 민간인 사망자가 100만 명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고, 수백만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는데,⁷²⁾ 아직 미국은 공식 사과를 한 적이 없다. 바탕가스는 일본군이 태평양전쟁 동안인 1944~1945년에 강점하면서 25,000명에 이르는 민간인을 게릴라로 몰아서 학살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⁷³⁾

독일의 예를 보자. 흔히 독일은 나치의 만행을 사과하고 주변국과 화해한 모범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 독일도 사과와 보상에 인색하다. 동학농민혁명이 끝나고 10년도 지나지 않은 1903년에서 1909년까지 독일이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 자행한 헤레로·나마족의 살해 행위가 20세기 최초의 학살로 불린다. 독일 정착민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본국에서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해 보호령의 인민들이 더 이상 제국의 일원이 아님을 천명하고 학살한 것이다. 사망자의 숫자가 10만 명에 달하는데 헤레로족의 80퍼센트와 нама족의 50퍼센트가 여기에 해당된다.⁷⁴⁾ 독일은 이 종족

1902,”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899-1913/war> (검색일: 2018. 10. 1).

70) Howard Zinn,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492-Present* (New York, Harper, 2005), p. 316.

71) Joel Ruiz Butuyan, “US Apology Is Overdue,” *Inquirer*, 2016년 9월 19일, <https://opinion.inquirer.net/97456/us-apology-is-overdue> (검색일: 2018. 10. 19).

72) Spencer Tucker, *The Encyclopedia of the Spanish-American and Philippine-American Wars* (Oxford, ABC-CLIO, 2009), p. 478.

73) Bruce D. Landrum, “The Yamashita War Crimes Trial: Command Responsibility Then and Now,” https://www.pegc.us/archive/DoD/docs/Landrum_Yamashita.doc (검색일: 2018. 10. 1).

들의 땅을 몰수하고 '원주민 보호구역'을 설정해 분리시키면서 목축을 금지시켰다. 대대로 가축을 기르며 살아온 종족들에게 이런 행위는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폭정이었다. 독일은 거듭되는 나미비아 정부의 사과 요구에 100년이 지난 2015년에야 겨우 학살(genocide)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했지만, 이것도 2017년에 이르러 가혹행위(atrocities)로 의미가 강등시켰고, 공식적인 배상은 거부하고 있다.⁷⁵⁾

근대국가에 의한 대량학살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문명국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한 근대국가가 야만국이라고 불렀던 국가들과 폭력성면에서 별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그들이 개발한 첨단 무기의 파괴력으로 인해 폭력이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V. 실패패권과 공위기

1. 청의 실패패권

19세기 후반의 국제질서를 논할 때 패권이 행사되는 범위에 따라 전 세계적 패권, 동아시아 지역패권, 한반도에 대한 패권이라는 세계의 층위가 존재한다. 첫째,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2차 아편전쟁 (1856~1860)의 승리로 인해 전 세계적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동아시아 지역까지 영향권을 확대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는 상황이 되었다.⁷⁶⁾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영국의 전 세계적 패권 아래에서 청과 일본의 지역패권경쟁이 러시아라는 변수와 함께 연동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한

74) Kossler(2015), p. 17.

75) Henning Melber and Reinhart Kössler, "Genocide Negotiations between Germany and Namibia Hit Stumbling Blocks," *The Conversation*, January 11, 2018.

76) 한승훈, 「고립정책과 간섭정책의 이중주」, 『역사비평』 114호, 2016, 58쪽.

반도에 대한 패권은 역사적으로 청이 장악했지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청의 패권이 종식되었다.

청은 19세기 말 근대국가로 변모한 일본과 비교해 한반도에 대한 패권을 가질만한 군사적 능력이 없었다. 영 해군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천황에 대한 충성심, 신식 훈련, 신식 군함으로 무장한 일본의 해군력에 비해, 청의 해군은 숫자는 많았지만 통일된 지휘체계의 부재, 훈련과 신식무기의 부족, 부패의 만연으로 인한 보급부족으로 전쟁을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다.⁷⁷⁾ 이것은 패권국가로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만한 군사적 역량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표 2>는 1881년부터 1896년까지 일본, 청, 영국, 러시아의 방위비를 비교한 것이다. 청의 자료는 1895년까지 추산되지 않아 직접비교가 힘들지만, 1896년에 약 3백만 달러로서 7백만 달러를 상회하는 일본의 반도 되지 않는다. 일본의 방위비도 당시의 강국이었던 영국과 러시아와 비교해 보면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 표는 군사력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일본이 삼국간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보여준다. 이 표에서 주목할 것은 일본의 방위비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그리고 청일전쟁을 계기로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이다.

서구 열강들보다 군사력 면에서 약한 일본이 청일전쟁의 종전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당시 일본 외상 무쓰와 벨기에 대표의 동경 면담기록을 영국외무성이 입수한 자료에 잘 드러난다. 일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청의 권위가 손상되어 내란이 일어나고 무정부상태가 되면 청이 “유럽 열강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었다.⁷⁸⁾ 영국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가 청의 약화와 분열로 이어질까 두려워했듯이, 일본 또한 청이 약화되어 무력 면에서 훨씬 앞선 서양세력에 의해 분할될까 걱정한

77) Bruce Elleman, *Modern Chinese Warfare, 1795-1989* (London, Routledge, 2001), p. 114.

78) Foreign Office, October 1895, p. 4.

것이다.

〈표 2〉 주요국 방위비 비교(단위: 1,000달러)

연도	일본	청	영국	러시아
1881	1,728	N/A	22,350	30,187
1882	1,809	N/A	24,028	27,617
1883	2,046	N/A	24,410	22,196
1884	2,120	N/A	27,051	22,500
1885	1,873	N/A	38,021	25,140
1886	3,109	N/A	29,412	24,932
1887	3,271	N/A	27,740	23,279
1888	3,238	N/A	27,136	21,482
1889	3,529	N/A	28,990	27,233
1890	3,905	N/A	29,602	30,191
1891	3,576	N/A	29,742	34,531
1892	2,496	N/A	31,871	30,053
1893	2,351	N/A	29,824	32,131
1894	13,167	N/A	33,168	35,039
1895	11,743	N/A	35,743	36,019
1896	7,398	2,994	35,253	36,679

*출처 : David Singer, J., Stuart Bremer, and John Stuckey. "Capability Distribution, Uncertainty, and Major Power War, 1820-1965," in Bruce Russett (ed) *Peace, War, and Numbers* (Beverly Hills, Sage, 1972), pp. 19~48.

한반도에 대한 패권의 공위기는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까지 10년 정도 지속되었지만,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공위기는 청일전쟁이 시작된 1894년부터 일본이 중일전쟁으로 중국의 주요부를 획득한 1937년까지 40여 년간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아직 이 지역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는 아니었고, 영국, 러시아 등 역외 열강의 간섭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다.⁷⁹⁾ 한 국가가 지

79) Torsten Weber, "Same Race, Same Fater?: Theories of Asian Commonality and the Shift of Regional Hegemony in East Asia After the First Sino-Japanese War (1894/5)," Volker Barth and Roland Cvetkovski, (eds), *Imperial Co-operation and Transfer, 1870-1930: Empires and Encounters*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7), p. 154.

역 내의 경쟁국을 꺾고 세계적 패권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면서 지역의 패자로 부상하는데 40여 년이 걸린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역패권도 10년을 못가고 1945년의 패전으로 종식되게 된다.

2. 동학농민전쟁과 국제사회의 무관심

일본군이 조선에 진출해서 3만 명이 넘는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동학농민전쟁에 대해 일본신문은 ‘동학당 몰살’ 등으로 자세히 알리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 열강들이 일본군의 섬멸작전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⁸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열강이 대량학살에 대해 침묵했다는 것은 동학과 같은 반외세 민족주의 집단이 잠재적 적대세력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런 면에서 일본군의 학살에 묵시적 지지를 보내거나 방조한 것이다.⁸¹⁾ 이것은 외세 배척운동인 의화단 운동(義和團運動) (1899~1901)을 빌미로 일본과 7개 서구열강의 연합군이 톈진과 베이징을 함락하고 약탈과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것과 비유될 수 있는데, 제국주의세력간의 협력체제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식민지를 경영하는 제국들 간에는 상호 경쟁하면서도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존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을 경존체제(競存体制)라고 부르기도 한다.⁸²⁾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요청에 군대를 파견한 청도 동학농민군 학살을 비난할 상황이 아니었고, 러시아의 남하를 일본을 통해 저지하려는 영국도 같은 입장이었다. 러시아의 관심은 한반도보다 만주지역이었고, 미

80) 나가츠카, 이노우에, 박맹수 (2014), 126쪽.

81) 위의 책, 126쪽.

82) 山室信一, 「國民帝國論の射程」, 山本有造編, 『帝國の研究-原理・類型・關係-』, 名古屋大学出版会, 2003, 108쪽; Volker Barth and Roland Cvetkovski, (eds.) *Imperial Co-operation and Transfer, 1870-1930: Empires and Encounters*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7).

국은 1895년 인접국인 스페인 식민지 쿠바에서 스페인에 대항한 무장봉기가 벌어지자 카리브해의 전략적 요충인 쿠바를 스페인에서 탈취하는데 전략적 관심이 있었다. 결국 제국주의 세력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약소국을 분점하는데 몰두했고, 앞에서 설명한 미국과 독일의 대량학살처럼 같은 학살자의 처지에 있었다.

한편, 힐리어 총영사는 형편없는 무장을 한 동학군은 일본군의 적수가 되지 않아서 청주전투에서 “상당한 학살(considerable slaughter)”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⁸³⁾ 힐리어 총영사는 조선에서 일본이 반감을 산 이유는 고종의 권위를 박탈한 것 때문이고, 조선인은 청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본을 몰아낼 것으로 믿지만 그 가능성은 별로 없고 중국에는 동학군은 해산되고 일본의 ‘철권통치’를 받아들일 것으로 분석했다. 조선의 해체과정에서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량 학살과 자생적 반제국주의운동의 약화는 19세기 말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제국주의적 질서로 변환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VI. 결론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16세기에 조선은 명의 지원 아래 민관이 함께 7년간의 전쟁을 수행했고 일본군을 격퇴했다. 청일전쟁기의 조선과 청은 어떠했나? 조선은 민관이 분열되어 내란이 벌어진 전근대적 실패국가였고, 청은 서양열강의 침탈과 내부 혼란으로 조선에서 마지막 허세를 부리던 실패패권국이었다. 근대국가 일본은 임진왜란과는 달리 몇 개월 만에 조선을 점령하고, 요동, 산둥, 대만에 이르는 청의 주요부를 장악했

83) Foreign Office, October 1895, 15쪽.

다. 비록 삼국간섭을 가져왔지만 전쟁이라는 측면에서는 확실한 승리였다. 이 연구는 청일전쟁을 단순히 국가 간 대결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전쟁당사국의 정체성을 개념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명료한 분석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즉, 청일전쟁을 실패국가의 통치불능 상태를 빌미로 근대국가가 실패국가에서 실패패권을 몰아내고 제국주의 국가로 부상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승리의 이면에 실패국가, 실패패권, 근대국가의 삼각관계가 빚어낸 동학농민군의 홀로코스트가 위치한다.

근대국가의 형성은 산업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국가의 성립을 의미하지만, 전쟁과 군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쟁 후에도 군비가 전쟁 전의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는 '영구적인 전쟁국가(permanent war state)'의 탄생을 의미했다.⁸⁴⁾ 일본이 빠르게 '전쟁국가'로 탈바꿈하는 사이 조선과 청은 봉건적 질서를 고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위기에 봉착했다. 조선의 왕과 지배층이 일본에 쉽게 굴복한 대신 동학농민군과 의병은 조선의 존재와 정체성을 대내외에 각인시켰다. 저항하는 민중이 일본과 일본을 따르는 조선의 엘리트에 의해 살육당하면서 1910년의 합방은 비교적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보면 실패국가나 근대국가 모두가 내부적 모순을 지닌 국가였으며, 비슷한 문제가 21세기에도 반복되고 있다.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 19세기 말과 같은 패권의 전환이 발생하고 있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19세기 말의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내란과 대량학살 등을 동반하는 혼란 상태를 막기 위해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가운영과 함께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자강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홀로코스트를 당한 동학농민군이 원했던 것일 것이고, 그 후 정미의병이나 내년에 100주년을 맞는 3.1

84) Michael Mann, *States, War and Capitalism: Studies in Political Sociology* (Oxford, Blackwell, 1988), p. 108.

운동의 참가자들이 염원한 것일 것이다.

동학농민군이 겪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연구의 진전은 앞으로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이 식민 지배보다 더 참혹한 대량 살상을 한일합방 15년 전에 감행했는데도 아직 양국 간 외교문제로 거론되고 있지 않다. 동학농민군의 학살과 식민지배를 연결시켜 이 학살이 식민지배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이 자행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공론화된다면 한일 간의 과거사 논쟁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8년 10월 31일

논문 심사일 : 2018년 12월 9일

게재 확정일 : 2018년 12월 18일

참고문헌

〈외교사료〉

Foreign Office, Confidential, "Further Correspondence relating to Korea and the War between China and Japan, January to March 1895," October 1895.

Foreign Office, Confidential, "Further Correspondence relating to Korea and the War between China and Japan, April to June 1895," December 1895.

〈논저〉

김만길, 『고쳐 쓴 한국 근대사』, 창작과 비평, 2001.

구선희, 「갑신정변직후 反淸政責策과 청의 袁世凱 파견」, 『사학연구』, 51권, 1996.

구선희, 『한국근대 대청정책사 연구』, 혜안, 1999.

권내현, 「내재적 발전론과 조선 후기사 인식」, 『역사비평』, 111호, 2015.

김경록, 『청일전쟁과 일제의 군사강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8.

김선표, 「실패국가에 대한 국제사회 개입 문제: 북한 관련 합의와 대응방안에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24집 1호, 2017.

김재근, 「朝鮮王朝의 水軍」, 『군사』 1권, 1980.

나카츠카 아키라, 이노우에 가쓰오, 박맹수,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모시는 사람들, 2014.

바우만, 지그문트, 정일준 역,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새물결, 2013.

박은숙, 「갑신정변 주도세력의 참여층 포섭과 무력동원」, 『한국근현대사연구』, 27집, 2003.

박현모, 「세도정치기(1800-63)의 정국운영과 언론 연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6권 1호, 2007.

배항섭, 「기획 부호와 도적의 사회사 조선후기 삼정문란과 평화적」, 『역사비평』, 17호, 1991.

오지영, 동학사 초고본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서운연구소, 1996.

이삼성, 「제국 개념과 19세기 근대 일본」, 『국제정치논총』, 51권 1호, 2011.

이영훈, 「조선후기 이래 소농사회의 전개와 의의」, 『역사와 현실』, 45집, 2002.

이영훈, 「19세기 조선왕조(朝鮮王朝) 경제체제(經濟體制)의 위기(危機)」, 『조선시대사학보』, 43집, 2007.

- 임혜련, 「철종대 정국과 권력 집중 양상」, 『한국사학보』 49권 (2012).
- 정승교, “동학농민운동 [東學農民運動: 반침략 반봉건의 최대 민중항쟁,” 『한국사콘텐츠』. <http://contents.koreanhistory.or.kr/id/E0097> (검색일: 2018.9. 30).
- 조경달, 박맹수 역, 『이단의 민중반란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그리고 조선 민중의 내셔널리즘』, 역사비평사, 2008.
- 하라 아키라, 김연옥 역, 『청일·러일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 살림, 2015.
- 하원호, 「곡물의 대일수출과 농민층의 저항」, 한국역사연구회(편),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역사비평사, 1991.
- 한승훈, 「고립정책과 간섭정책의 이중주」, 『역사비평』 114호, 2016.
- 홍동현, 「1894년 일본 언론의 동학농민전쟁 인식」, 『역사문제연구』 24권, 2010.
- Barth, Volker, and Roland Cvetkovski, (eds.) *Imperial Co-operation and Transfer, 1870-1930: Empires and Encounters*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7).
- Butuyan, Joel Ruiz, “US Apology Is Overdue,” *Inquirer*, 2016년 9월 19일, <https://opinion.inquirer.net/97456/us-apology-is-overdue> (검색일: 2018. 10. 19).
- Dawidowicz, Lucy S., *The War Against the Jews: 1933-1945*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5).
-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Historian, “The Philippine-American War, 1899-1902,”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899-1913/war> (검색일: 2018. 10. 1).
- Elman, Colin, Miriam Fendius Elman, (eds.) *Bridges and Boundaries: Historians, Political Scientists, and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MIT Press, 2001).
- Elleman, Bruce, *Modern Chinese Warfare, 1795-1989* (London: Routledge, 2001).
-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1992).
- Gordon, Ruth, “Saving Failed States: Sometimes a Neocolonialist Notion,”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12-6(1997).
- Landrum, Bruce D., “The Yamashita War Crimes Trial: Command Responsibility Then and Now,” https://www.pegc.us/archive/DoD/docs/Landrum_Yamashita.doc (검색일: 2018. 10. 1).

- Helman, Gerald, and Steven B. Ratner, "Saving Failed States," *Foreign Policy* 89 (1992-1993).
- Mann, Michael, *States, War and Capitalism: Studies in Political Sociology* (Oxford, Blackwell, 1988).
- Melber, Henning, and Reinhart Kössler, "Genocide Negotiations between Germany and Namibia Hit Stumbling Blocks," *The Conversation*, January 11, 2018.
- Richardson, Henry J., "Failed State, Self-Determination, and Preventive Diplomacy: Colonialist Nostalgia and Democratic Expectation," *Templ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10(1996).
- Rotberg, Robert I., "Failed States, Collapsed States, Weak States: Causes and Indicators," in Robert I. Rotberg (ed), *State Failure and State Weakness in a Time of Terro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3).
- Tilly, Charles, "War Making and State Making as Organized Crime," in Peter Evans, et al., (ed) *Bringing the State Back*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Tucker, Spencer, *The Encyclopedia of the Spanish-American and Philippine-American Wars* (Oxford, ABC-CLIO, 2009).
- Weber, Max, *Weber: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Weber, Torsten, "Same Race, Same Fater?: Theories of Asian Commonality and the Shift of Regional Hegemony in East Asia After the First Sino-Japanese War (1894/5)," Volker Barth and Roland Cvetkovski, (eds), *Imperial Co-operation and Transfer, 1870-1930: Empires and Encounters*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7),
- Wimmer, Andreas, and Brian Min. "From Empire to Nation-State: Explaining War in the Modern World, 1816-2001,"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6(2006).
- Zinn, Howard,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492-Present* (New York, Harper, 2005).
- 平野龍二, 『日清・日露戦争における政策と戦略: 「海洋限定戦争」と陸海軍の協同』, 千倉書房, 2015.
- 原田敬一, 『日清・日露戦争』, 岩波新書, 2007.
- 吉村忠典, 「帝國という概念について」, 『史學雜誌』 108編 3号, 1999.

福澤諭吉, 『通俗國權論』, 慶應義塾出版社, 1878.

安川壽之輔, 『福澤諭吉のアジア認識』, 高文研, 2000.

山室信一, 「國民帝國論の射程」, 山本有造編, 『帝国の研究-原理・類型・関係-』,
名古屋大学出版会, 2003.

Abstract

A Holocaust Trio of A Failed State, A Failed
Hegemony and A Modern State:
A Conceptual Analysis of the Sino-Japanese War
and Japan's Genocide of
the Donghak Peasant Armies

Key-Young S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transformation of East Asia's international order and the masses of Joseon as the victims of the era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istorical studies. While conducting an interdisciplinary analysis to achieve cross-fertilization between the two academic disciplines, this research aims to undertake the collection of historical data and the conceptualization of historical facts. This research illustrates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Donghak Peasants War from the international, national and popular movement levels by using the concept of "state failure" and the methods for analyzing the Holocaust of Jews. This approach sheds light on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environment that made possible the genocide of the Donghak peasant armies and villagers whose victim count ranges from 30,000 to 300,000 to 400,000. It argues that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Holocaust of the Donghak peasant armies and villagers were caused by a trio of a modern state(Japan), a failed state(Joseon) and a failed hegemony(Qing), with the former exhibiting aggressiveness and brutality and the latter two producing governance crises.

Key words

Sino-Japanese War, Donghak, genocide, Holocaust, failed state